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列强軍備競爭의 白熱化

一

日本의 華府條約 廢棄와 倫敦軍縮會議 脫退를 契機로 從來부터 軍備擴張에 苦心하던 世界列强은 苦待하든 絶好의 機會가 왓다는듯이 露骨的으로 軍備競爭을 開始하엿다。昨今新聞紙上에는 거이날마다 列强의 艦船計畫이니, 空軍擴充이니, 追加軍備豫算이니하는 記事가 滿載되며 또事實에잇서서도 此等計畫을 着着 實行하여나가는 모양이다。中歐에잇서서는 獨逸의 再軍備問題를 圍繞하고 佛蘇其他關係諸國의 軍備競爭이 자못激甚하며 伊太利는 方今 交戰中에 잇스니마치 말할것도 업고 地中海에 잇서서는 土耳其의다다넬스海峽再武裝이 關係諸國에 亦是 軍擴의 氣勢를 刺戟하엿고 極東에 잇서서는 滿蘇, 滿蒙國境問題를 둘러싸고 關係諸國은 軍備充實에 汲汲하고 잇스며 아메리카合衆國도 라틴아메리카諸國에 對하야서는 善隣政策을 써오면서도 멀리 太平洋건너잇는 나라가 自國에 威脅이 된다는 口實로 無敵海軍, 無敵空軍의 擴張에 急急한 財政을 아끼지안코 軍備擴張에 奔忙하고잇다。

二

倫敦會議에서 四國協定이 成立되고 英蘇海軍會議가 不遠間 開催될 氣運이 잇스나 이것이 軍縮의 實을擧하지못할것은 누구나 잘아는 事實이지마는 獨佛關係를 除하고는 西歐에關한限 몃몃列强사이에 어느程度의 諒解가 成立된것은 事實이다。그러나 極東方面에 關하야서는 日本에서 萬一에備하기爲하야 軍備充實을 圖하는他面에 될수잇는 範圍內에서 極東平和維持에 努力한다 하나 아즉까지는 條約또는 協定에依한 平和保障의 具體的事實이 나타나지 안헛슬뿐아니라 事實에 잇서서도 이러타할만한 平和促進의 氣味가 보이지안는다。그리고 蘇聯의 外蒙進出이 日本에對하야 크다란 威脅이되는同時에 一九三七年以降 太平洋方面의 海軍無條約狀態를 目前에둔 列强 特히 英米兩國에서 軍備擴張을 露骨的으로 하게되는데 極東의 重大性은 一層더 크게되는것이다。

三

그러면 英米및蘇聯等列强의 最近軍備擴張은 어떠한 程度로 進展되고잇는가? 蘇聯의 一九三六年 軍事豫算은 百四十億留로 前年度의 六十五億留에 比하면 實로 倍以上의 膨大한 數字가되며 兵員은 百三十萬에 達한다。蘇聯의 海軍은 보잘것이 업지마는 同國은 空軍에 注力하는대 現在는 極東空軍과 潛水艦 三個年計劃에 依하야 西伯利亞에 鐵道網 敷設에 汲汲하고잇다。그리고 [illegible]少佐의 [illegible]報告에依하면 同國의 現在軍備는 日露戰爭當時의 七倍에 達하엿다 한다。

米國軍擴張論者는 恒常 日本의軍備가 優越하다는것을 指摘하야 自國軍備擴張을 꾀하고잇다。上院海軍委員長 피트맨氏가 그의 代表的軍擴論者로 此等 國內的宣傳도 잇는것은 아니나 如何間 米國은 現在 빈손案其他 擴張計劃에依하야 方今 起工中의 艦艇이 六十一隻, 今年末起工分이 七十七隻이나되며 空軍에 [illegible] 米國은 去廿日 下院에서 今後五個年間 [illegible]을 決定하엿슬뿐아니니 [illegible] 軍事上에 [illegible]하고 民間飛行士에 [illegible]을 普及하는同時에 各大學에도 飛行練習을 設置하기로 되엿다。軍備施設에 關하야 一一히 枚擧할것이 업시 今年軍事豫算이 陸軍 三億七千五百萬弗, 海軍 五億三千三百萬弗이라는 戰時以外에 空前의 大豫算이 原案그대로 議會를 通過한것으로보와 [illegible]할수잇다。

英國의 軍備擴張도 他國에게 지지안는다。今年度海軍豫算六千九百九十三萬磅은 前年에比하야 九百八十八萬磅의 增加를 示하엿다。어가튼膨大한豫算도 不足하야 去三十日 英國海相은 一千萬磅의 海軍追加豫算을 發表하고 이것으로써 主力艦及補助艦等 三十八隻을 新造할것을 言明하엿다。도 英國空軍省은 今年末까지 一千七百五十臺의 主力[illegible]을 [illegible]의 第一線 航空兵을 [illegible]하고 海兵도 六千名을 增員할것을 發表하엿다。이外에 二億磅의 巨大한 資金을 準備하야 陸海空軍擴張計劃이 잇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이와가튼 列强의 全面的 軍備擴張에 對하야 日本도 그內容을 發表하지안는다하드래도 此에 對應할 萬全을 企하고잇는것이 事實이다。그러면 이가티 激化한 列强의 軍備競爭은 將次 어찌될것인가? 이 表示치 안흔 모멘트에 際하야 吾人에게 생각나는것은 大戰直前의 英獨海軍의 無限한 軍備競爭이라는 그 事實뿐이다。

西班牙左翼派의 反宗敎示威

=過般總選擧에 勝利的으로 勝利하야 氣勢를 올리고잇는 西班牙의 共産黨員들은 餘勢를 右派勢力의 本據인 宗敎方面으로 集中하야 異常한 그示威는 到處에서 카톨릭 敎宗의 財物에 불을 지르는等 右派新聞의 工場을 破壞하는等 大暴動을 이르키고잇서 國內不安은 一九一七年 露國大革命當時의 前夜와가튼 混亂狀態를 演出하고잇다한다(寫眞은 마드리드 郊外서 共産主義者들이 敎會의 [illegible]를 불지르고 [illegible]하는光景)

滿冀關稅協定과
北中密輸의 眞相如何?
英對中貿易에 重大脅威라고
駐日英大使、調査依賴

【東京電話同盟】駐日英大使크라이브氏는 二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 最近冀東自治政府와 滿洲國과의間에 關稅協定이 成立되엿다 하는데 그稅率은 天津海關의 四分之一程度인 英國의對中貿易은 重大脅威를받고잇다 그런대 最近冀察政權과의間에도 同樣의 關稅協定交涉이 進捗되고잇다고 傳하는데 事實인가 그리고 滿洲國과 北中과의間에서 行하는 巨額의 密輸는 英國의對中貿易에 大打擊을 興하고잇는바 右에關하야 日本政府의 調査가잇스면 알려주기를바란다 고말하엿다 이에對하야 有田外相은 冀東政府와 滿洲國과의特惠關稅協定에 對하야는 何等情報를 接하지못하엿다 北中의密輸에 依하야 日本關係商品도相當한 影響을 蒙하고잇는데 詳細한 事情은 聽取치못하엿슴으로 如何는調査하야 回答하겟다고 答하고 同十一時 會見을 終了하엿다 英國政府는 昨年리드로스氏를 特使로 中國에 派遣하야 英國의 對中權益維持에 對하야 必死의努力을繼續하야 리드로스氏는 北上하야 北中經濟狀態를 視察하고잇는데 日滿勢力의 進出로 所期의效果를 收得하지못하엿슴으로 依然責任을日本側에 轉嫁하기爲하야 그前提로 日本當局에 事實調査를 依賴한것으로 그推移는 注目되여잇다

滿洲國皇帝陛下
訪日宣詔記念祝宴

【新京二日發同盟通】새로制定된訪日宣詔記念日을마저 二日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는 植田關東軍司令官以下 日滿文武官을 宮廷에 御召하시여 賀宴을퍼시고 特히 優渥한勅語를 賜하섯다

滿獨協定
國府는絶對反對

【南京一日發同盟】南京政府는새로 成立된 滿獨通商協定에 關하야 重大關心을 示하고잇는데 在南京 獨逸總領事館으로부터 特히 右一切의 內容을 發表하기에 앞서 去四月二十九日代表를 外交部에 派遣하야 同協定 全文을通牒하고 南京政府의 諒解를 求한바 잇섯는데 右에 對하야 外交部는 이를 자못 重視하고 目下 同協定에 對하야 對策을 考究中인데 近近 絶對反對의 意思表示를 할것으로 보인다

朝滿鐵道會議終了

去三十日부터 鐵道局第二會議室에서 開催中이든 朝鮮鐵道 會議는 朝滿鐵道의 技術的 一元化를目標로한 十數件의 議題를 討議를終了하고 二日 閉會하엿다

交涉團體定員削減
小會派에서 要望
十五名乃至二十名으로하도록
民意暢達의 主旨에서

【東京電話同盟】衆議院各派의 一日 社大黨十八名 地方無産四名 合計 二十二名의 無産派는一致結束하여 第一控室의名義로써 申出하고 또 無所屬議員 二十三名은 一團이되어 第二控室의名義로 申出하고 國民同盟을 東方會의 主體인 國同十五名도 亦是 國民同盟을 東方會의 手續을 取하야왓음으로 政友民政兩派以外는 所謂 交涉團體로서의 議會鬪爭은不可能하게되엇는데 此等各派는 衆議院의 先例에依하야 『議員數 二十五名未滿의 黨派는 交涉團體로 認定치안는다』 이라고 잇스나 이는 도로혀 議會制度의 本質에 背反한도 甚하다는 論據下에 議會政治確立은 如斯한 不當한 先例를 打破하고 主義主張을 闡明한 團體로서 相當한 議席을 가진것은 當然 院內에서 交涉團體로 發言權과 各種의 權利를 行使케하도록 一日의 衆議院各派交涉會에서 國同의 淸瀨一郎 國同書記長과 社大의 麻生久 河上丈太郎兩氏 無所屬議員團의 今井新造 小山亮 中野正剛氏等 諸氏로부터 右主旨에 基하야 十五名以上을 가진 團體는 이를交涉團體로 取扱할것이라는 强硬한 提議를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右提議에 對해서는 民政과 政友는 絶對反對하야 先例의 二十五名을 固執할터로 右交涉會는 兩派의 對立은 必至라고 보이므로 各方面의 注目의 焦點이 되어잇다

小會派의要望을
民政婉曲히拒否

【東京電話同盟】小會派의 國同盟淸瀨幹事長 社大의 龜井貫一郎氏는 二日午前 院內控室에서 民政黨의 永井幹事長 小泉、小山(松)院內主任總務를 訪問하고 從來交涉團體의 資格은 無所屬議員數 二十五名以上으로 되여잇는데 小會派가 만케된 [illegible]會의 現狀에 鑑하야 此等小會派에도 發言權、交涉團體를 與하야 民意를 暢達하는 主旨에 依하야 二十五名의 制限을 緩和하야 十五名乃至 二十名으로 하기를바란다 그리고 質問者의順位에 對하여는 野黨質問者에게 優先權을 與하여든 先例를 復活하기바란다 職員에對하여도 小會派를 考慮하기바란다는 旨를 述한데對하야 小山院內總務는 團體交涉權 其他의 問題에對하여는 議會振肅委員會에서 協議하기를바란다 고答하야 會見을 終了하엿다 그리고 小會派前記諸氏는 同樣으로 政友會側과 會見하고 略同意見을述하야 懇談을 行하엿다

貴院革新建議案
七日議會에 提出?
火曜會에서協議中

【東京電話同盟】火曜會에서는 一日 院內控室에서 細川、酒井、島津(忠承)、佐佐木、島津(忠重) 池田、岩倉의 諸氏가 參集하야 貴革同盟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研究會總會의 結果를 待하야 包含시킨 調査機關設置의 目的은 아니오 改革、改善을 目的으로 한 調査機關의 設置의 點은 火曜會로서도 革新同盟의 建議案을 成立시키는데 贊意이 一致되엇스므로 來五日 午前十一時 院內에 第三回 各派交涉會를 開하고 協議한다음 繼續하야 各派小委員會를 開하고 建議案을 起草하야 交涉委員에게 示하기로되엿다 右建議案의 草案은 從來의 關係上 火曜會의 細川護立氏의 意見에서 作成할터로 交涉會의 卽決은 困難이므로 自派側에 가저와 各機關에 諮하야 決定하기로 된 模樣이어서 貴族院提出은 順調로 나가더라도 七日에 될것으로보인다

各派交涉會決定
交涉團體減員認定안코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은 二日午前十時 各派交涉會를 開하고 如左한 事項을 決定하엿다
一、部屬決定件(從前대로함)
一、交涉團體件(從前대로함)
一、開院式의 勅語奉答文起草委員件
委員數十八名
內譯 民政七 政友七 昭和一 第一控室一 第二控室一 國同一
(但 國同의 一은 今回에 限하야 民政黨에서 讓步한것)
一、常任委員件(從前대로함)豫算委員配定 民政二八 政友二四 昭和三 第一三 第二三 國同二 合計六三
懲罰委員配定 民政一一 政友一〇 昭和一 第一一 第二一 無所屬一 國同一 合計二七
建議委員(從前대로함)
一、本會議日及質問日(從前대로함)
一、法律案上程에 正規의日數를 두지안흘것
一、議場內交涉係는 各派三名으로함
一、各派協議會出席人員은 從前대로함
一、本會議發言順位는 左와如하다
民政、政友、民政、政友、民政、政友、民政、政友、昭和、第一、第二、國同、無所屬
(以上을 反覆함)

貴革建議案要旨

【東京電話同盟】貴族院改革에關한 建議案作成에對하야는 來五日 院內에서 行할 各派交涉會에 提議하야 交涉會에 諮하기로되엇는데 目下火曜會에서는 細川護立侯가 硏究會를 爲始하야 各派의意向에基하야 法案作成中인바 硏究會에서主張하는 調査機關設置云云을 主文에 入할것이냐 또는 理由書에 包含할 點은 小委員會를 開한後가 아니면 決定치안코 只今의 狀態로는 主文에 너케될 模樣인데 要旨는 如左하다
建議案主文
時勢에 鑑하야 貴族院制度의 運用에 關하야 改善할 必要가잇다고 認定한다 따라 政府는 調査機關을 設하야 立案한後 本院에 提出할것이다
右建議함

議會制度調査機關
各派共同提案?
貴院改革을契機로

【東京電話同盟】貴族院改革同盟에關한 建議案은 幾多의 迂餘曲折을 經由하야 마침내 各派共同으로 提案하게 되엿다 그리고 貴族院으로서는 政府도建議案의 趣旨를 尊重하야 調査機關을 設置하게 되리라고 보고잇다 政府도 廣田新內閣의 見地에서 此際 議院制度의 全般에 亘한 改正을期하야 貴族院改革問題에 關한 調査機關으로 하지안코 議院制度의 改善을 調査審議할 機關을 設置하야 調査委員에는 政府關係者以外에 關係顧問官、學者、衆貴兩院議員等 各方面에 亘하야 斯道의 權威者를 網羅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戒嚴令撤廢案에
關係當局反對
政民兩黨도時期尙早라고主張
國同提案에對한反響

【東京電話同盟】國民同盟은 政民兩派의 共同으로 戒嚴令卽時撤廢에關한 決議案이 提出케되엿는데 戒嚴令司令官 陸軍當局은 去月二日 戒嚴令發布以來 司令官이就任에 際하야 發布한告諭에 示한바와가티 『戒嚴區域內의狀況은 大體平靜을保持하고 特異한事象을 보지못하나 戒嚴令中 必要한 規制가 依然 續行되고잇슴은 未曾有의不祥事件에 鑑하야 不祥事의 根本禍根을 完全히 하고 根本的肅正을 行하야 今後 如斯한不祥事의 禍根을 絶滅을 期하고 軍民一致 皇運을 扶翼하야 治安을 維持하는 目的에 不外한다』고하엿는바 現實의 諸情勢는 右告諭가 示한 目的을 完全히 達成치못하엿슴으로 戒嚴令의 撤廢問題에 關하여는 本令의 一日이라도 速히 撤廢하기를 가장 切望하는바이나 現在는 아즉 그러한 時期에 達하지못하엿다 그리고 何時에 撤廢할는가는 오직 現實事態에 依할것임으로 豫測할수 업다는 意見을 가지고잇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illegible]의 本分을 다하려는 決意로서의 本分을 다하려는 [illegible]案의 贊成은 實成하나 一方今日에도 아즉 戒嚴令이 撤廢되지안는것은 아즉 戒嚴令이 事實上 그러한時期에 이르지 못한것임으로 그 撤廢를 要求한은 時期尙早의 判斷이라하야 贊成을 아니하고 [illegible] 가 [illegible] 議會에서 行할 說明을 [illegible] 는 안할것이다

政民兩黨
協調空氣濃厚

【東京電話同盟】未曾有 特別議會에 際하야 政民兩黨은 非常時局에 鑑하야 議會政治의 確立을 企圖할 根本精神에서 合意되어 잇스므로 院內外를 通하야 共同動作을 取하게될것으로 豫想되고잇는데 그러므로 政民兩黨의 幹部는 一日에도 會合하야 相當한 意思交換을 가진 바 잇으며 [illegible] 이 完全히 步調를 가티하야 新議會에 臨할것으로 보인다 [illegible]長 副議長及 常任委員長 選擧에 際하야 兩大政黨이 協調할 것이며 [illegible]는 아마 國同의 [illegible] 常任委員長 選擧에서 [illegible] 今回의 特別議會에서는 從來의 黨略的 [illegible]에서 떠나서 [illegible] 用된것이 [illegible] 黨의 [illegible]이 國策에 [illegible]하야 [illegible] 主張할 [illegible] 協調의 [illegible] 으로 [illegible] 되고잇다

新倫敦海軍協定

【倫敦一日發同盟】 [illegible] 英米佛三國의 新倫敦海軍條約 調印은 一日午後 新聞記者會見에서 今期議會에 新倫敦海軍條約의 批准을 附議할 方針이나 아직 確定되지 안헛다 但 上院은 新條約 關係法案 [illegible]에 依하면 [illegible] 期日 [illegible] 等이 [illegible] 上程될 [illegible] 는 거의 업다고 한다

參謀本部會議
關東軍兵力充實等協議

【東京電話同盟】參謀本部에서는 二日午前十時부터 板垣關東軍參謀長을 마저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板垣參謀長、板西、花谷、千田의 各關東軍參謀、中央部로부터 西尾參謀次長、飯田總務部長 以下 各部課長、關係部員等이 出席하야 먼저 板垣參謀長이 最近의 滿洲國一般情勢、關東軍의 狀況等에 關하야 報告하고 이에 基하야 實際問題을 겨듭한後
一、關東軍兵力充實에關하야
一、增加後의 兵力의 內容
一、增加할 兵力配置
一、交通網通信網의 整備
一、以上의 實施順序
其他에 關하야 板垣參謀長以下로부터 關東軍案을 提示하고 說明하엿다 이에 關하야 審議하고 正午에 午餐을 가치한後 午後도 本問題와 其他의 關東軍諸計劃과 對滿新規諸計劃及 旣定計劃實施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漁業條約暫定協定을
大田大使에 訓令
新協定成立은不可能코 漁業期의 切迫으로
無條約狀態化를念慮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新協定이 切迫하야 無條約出漁의 念慮가 現實問題가되엇스므로 有田外相은 이 暫定的解決으로 現行日蘇漁業條約의 暫定的延長을決意하야 이미 去二十九日의 莫斯科의日蘇會議에서 日本側의 意向을 蘇聯側에 通告하야 蘇聯側의 考慮를 要求하고 有田外相은 右暫定協定에 關하야 一日의 閣議에서 正式으로 閣僚의 同意를 어덧스므로 卽日 大田大使에게 訓令하야 最近의 機會에 蘇聯政府에 對하야 暫定協定交涉을 開始케하기로되엿다 暫定協定에對한 訓令內容은如左하다
一、暫定協定의 內容은 現行日蘇漁業條約과 이에 附屬되는 一切의漁業協定을 그대로 今年度中 延期케할것
一、暫定協定成立後에는 다시 日蘇漁業條約의 改訂交涉을 繼續하야 可及的 速히 新漁業條約의 成立을期할것
一、日蘇漁業新協定成立이 困難함에 鑑하야 今年度中의 兩國漁業關係를 規律할 暫定協定

密山上空에
蘇聯飛行機越境

【哈爾賓二日發同盟】二日當地某所着情報에 依하면 去月二十二日午後二時頃 密山縣上空에 蘇聯機一機가 飛來하야 高度六百米를 保持하면서 回旋飛行하고 地上을 偵察한後 西南方으로 向하야 飛去하엿는데 依然蘇聯側의 不法越境이 되는 蘇聯側의 不法越境에 日滿當局을 憤慨케하고잇다

時事漫畫—聯盟의 努力이 적으나 이제는 正面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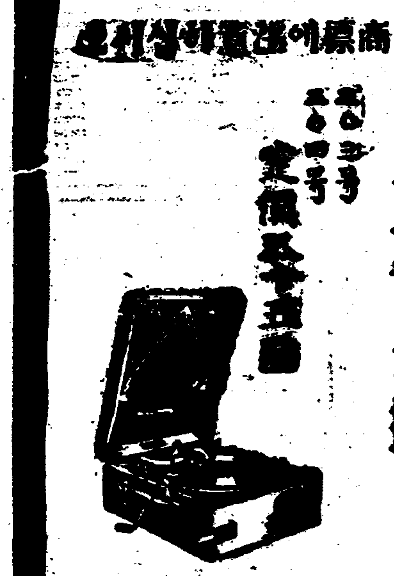
野村生命
야촌생명
本店 東京
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

代理店과 社員을募集하시 는분은 申込 하여주시요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 三百個入 [illegible]
救世藥館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豐

五月新譜
콜럼비아
世界第一의蓄音器



旣發賣傑作流行歌
希望의 鐘이 운다
빗나는 靑春
두목숨의 저승길

京阪神朝鮮人問題座談會

朝鮮人渡航問題의 援本的解決이時急

"相當한身分가지고도 渡航失敗하는일잇다" 密航裡面의 當局不親切을指摘

■■■ 지금이야기를 시작한지가 벌서 두시간이나 되엿는데 명문제를 아주 못하엿치웟스니 미안하지만 간단히말슴해주심을 바랍니다. 도항문제 일시귀향문제에 대하야서말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올때 도항증명을 가지고 와서 십지로 부산수상경찰서에서 고

■ 다른사람들의 당하는것을 보니 문제가만합니다 징병신만사람이 왕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보다도 엇더한방편이엇슬는지요 신준히씨 말슴해주시지요

■■■ 우리일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생각합니다 [illegible]

되나 이곳에와서도 그저지방열을 아니버리고 소위일할만한사람들이 아즉도 그괴벽을 버림이적으니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토리집만 작고 늘어서 풍긔상이라든지 조치못한 일이 생기며 그로 말미아마 범죄 늘리라고 봅니다 우리로 토리집경영방면을 개혁을 시키도록하여야 되겟습니다. 도항, 귀향문제와 한사람전에는 그러 어렵지 아니하엿습니다 제주도사람이 노동는 한고을사람으로서는 만히와잇기를 왕도(往渡)사람들이라고 본는데 참으로 왕래하기가극난합니다 일시귀향증명조차잘 아니 내어주므로 엇절수업서

가야할일이잇서 고향에 가랴면이엇지 불온이아와서 파산지경에 빠지는 사람이 만습니다 이곳에 처자가 잇스니 보고는 싶고 도 고향서는 살수업서 명을 버지서 이곳에 와서 엇지하야 말고를 하는 (?)이라도 하여서 이곳에지 겨우 처자를 보내니 또 한 [illegible] 어떤사람은 배나자여곳 나자 [illegible] 에 너이다가 [illegible] 우리로서는 아모쪼록 조선내지에서 이곳에 오지못하는 화사 잇는사람으로서 벌중에 것은 고사하고 이곳에 이왕한 문제는 업습니다 하도 답답하여서 서로 협의하야 어문제를 해결키 위하야 이문제를 외회(?)에라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 간단합니다

金■■ 간단히 서로 요어 말합시다

■■■ 제가 이곳에 지 사안에 고향에를 뚜번이나 갓섯는데 덕욱이 청변들이 족자고 일본마따라올려고 하여서 곤란을 당햇습니다。 고향에서 어지간만 견델수잇다면

먹지로 개쳐고 자기의 힘을 를 위하여서 통한하기를 우위하야서 [illegible] 지하고서 겨우어[illegible]가지고 온사 할도 잇섯습니다。 이곳서고향을가자면 일시귀향증명을어떠 가지고 가야되는데 부모가죽 엇다든지 혼인상이생긴로 나 갈려야 시급히갈려도 비행기식으로 어떠차 이상에내지오 륙일이요 그러치아니면 십오일동안이나 걸리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대부분이 잘아니내 줍니다 우리가 이곳에와서모 든노력으로 기초를 다거노핫 자 모다 수포가되고말것입니다 일본내지인은 거주와 의

식을 자유로할수잇다고 일본 헌법(日本憲法)에 명긔되여서 잇지만 그런것을 중하히한는 니하려합니다 이문제에대하야는 종로가나 [illegible] 이나 조선사람이면 다모르거 갓습니다 [illegible] 니문제에 [illegible] 재일본조선인(在日本朝鮮人)을 [illegible] 지아니하고서는 도저히 해결키어렵습니다 우리도 하루 [illegible] 키어럽겟스나 조선내지에서도 문제에 여론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가에게도 [illegible] 시귀향증명이 가티때로 부 산서 전보치면 곳으도[illegible] 하주마면서 아니내줍니다 저조선해협만건너가면 [illegible] 를 신중하게보지도 아니하고 [illegible] 어갈때에 부산서 [illegible] 겨우오는수도 잇는데 [illegible] 나 그잇는데이나 [illegible] 만습니다 이곳에서 [illegible] 어한다는데도 [illegible] 가족들이 내원하기가 [illegible] 며 정주가 조선인이라면 사 용여행을 [illegible] 국에서 아니하니 기가막힌 다 이니[illegible] 래우섯도 말할수업는 [illegible] 저번조선에보자 사실은 참으로 대우리 [illegible] 로 [illegible] 한 [illegible] 고

> **出席者** (無順) 京城側=(?) [illegible] 大阪側=高(?) (邪蘇敎牧師) 洪命用 (?) 林正業 (?) 鄭(?) (古物商) 李(?) [illegible] (宗敎家) 金敬中 (阪神消費組合長) 神戶側=崔時彙 (朝鮮物産商) 金(?) [illegible] (學者) 鄭重孝 (職工) 李民善 (職工) 主催側=本社編輯局長金炯元、阪神支局長方(?)、本社大阪支局長金光洙、支局員朴(?)、京都支局長金(?)、神戶支局長(?) 時=三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大阪川口 東洋(?)

로 매우히 어곳에와잇는 사람들은 고맙게생각합니다 출사 며가신분사에서 힘잇게 가려 보냈들어서 여론을 일으켜주 니다 어이하며 어곳에서 소리쳐서 해결하여야 되겟습 (사진은 제주도해녀들의선창광경)

어린이날 "祝賀의밤盛況"

朝鮮兒童藝術硏究會主催

신록이 방장을 오월의 첫공일은오백만 조선어린이들의 명절날이다 고히자라 기리뻗틀 조선어린이들의 명절을 금년에는 좀더 뜻잇게 마지하고저 시내의 조선아동 예술연구협회(朝鮮兒童藝術硏究協會)에서는 시내의 혀러저잇는 여러어린이 단체들을망라하야 이일밤 일곱시반부터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 대강당에서 동협회의 회장 정인섭(鄭寅燮)씨의 사회로 어린이날 축하대회(祝賀大會)를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 꼿갓흔 홍밀드시 몰여드러 장내는 입추의여지가업시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엇다 회순을따라 피피리화원들의 청아한 제창이잇고뒤니어 경성어린이 방송회원들의 황성의달(荒城の月)이란 동요(童謠)를 주위로들려주엇다 그리다가 또다시 서울동요연구소(童謠硏究所)소원들의 『천사(天使)』란 동요와『메밀꼿』이란동요를 일반중에게 크게실명(?)들이엿다 그후 도루미회원의 동창이 잇섯고 아동예술회원의 『시골로가자』란 동극이 또한뜻깁헛다

제이부에 드러가서는『알파, 하ㅣ모니카 밴드』가잇섯고 명성회(明星會)금란회(金蘭會)원들의 제창과 고장환(高長煥)씨의동화『부처님의 재채기』가잇나자 왕신동우회(旺新童友會)원들의『모두수잇는동무들』란 동극으로이밤의 프로를전부마추니 때는열시 이십분으로 회고에에하게 폐회하엿다

(사진은 긔경회관에서 열린축하의밤)

어린이날創始者의 故方定煥氏記念碑

李素의親知들이建立發起

조선어린이운동의 선구자요또 『어린이날』의 창시자(創始者)인 고소파방정환(故小波方定煥)씨의 긔념비를 오는 七월二十三일씨의 五주기일(週忌)에 세우고저 씨의 친지와 어린이관계자들이 이번 어린이날을 기회하야 발기하엿는바 생전에 씨와 교분이 잇고 또 씨를경모한는분은 어느분이든지 다소를 불구하고오는 六월그믐까지 시내견지정(堅志町)二二번지 조선중앙일보편집부내(朝鮮中央日報社編輯部內) 최영주(崔泳柱)윤석중(尹石重)씨에게로 한금을보내주기바란다하며 발기인은 아래와갓다

發起人 金東煥 金(?) 金復鎭 金永壽 金乙漢 金顯道 金炳(?) 元 張(?) 朴大陽 薛義植 徐恩淑 孫晉泰 安碩柱 尹石重 李(?) 李定鎬 李軒求 李泰運 李泰俊 鄭寅燮 鄭順哲 車士百 車相瓚 崔鳳則 崔泳柱 崔仁化 安(?)(가나다順)

이번商工運動에 夜市商人의特志

이번상공운동회에는 종로일대의 야시상인들이 처음으로 참가를하게되엇는데 참가선수만 연인원으로 四십명이라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은 동대회에서타는 상품과 또는녀졈한 비용의전악을 고아원(孤兒院)에구제비로 긔부하겟다는 성명을하야 일반은 그들의 갸륵한뜻을 가상히 역이다고한다。

멋업시날뛰는觀光團 一萬五千名을突破

아프로도一萬九千名이待機 —夜櫻景氣의異樣態

☆……봄! 도회지의 봄! 꼿! 창경원(昌慶苑)의 벗꼿! —이것을 차저 몰려드는 시골손님들로 서울장안은 요지음 사람사태가 낫다! 노리러 노라러마다 꼿바다! 거리거리마다 사람물결! 왁자하고 잡잡하는 서울장안은 한때의 꼿떠렴을 입어 『이풍페이순』세월을 맛난듯 갑작이 와글와글! 하고 잇다。

☆…소위 창경원에서 『밤벗꼿』이 열린지 오늘까지 닷새째— 이 짧은 동안에 일만오천이백한 시골관광단(觀光團)이 서울로! 창경원으로! 하고 몰려들엇다 그리하야 이들을맛는객주집들은 기뻐뛰고들잇고 저자거리의 장사군들은 뿌듯해지는 돈궤짝들을 바라다보고 빙그레 만족한 웃음을 띄우고잇다。

☆……그러나 그 수만동향객(鄕客)들! 더구나 가난한 농사군들!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피땀흘린는 동전꼬피 백동화짝이 비명을 올리며 흑은 음식점으로, 혹은 잡화상머리로 보람업시 허터지는것이다。

한사람이 주려잡고 오원식을 쓴다 가정하고보면 칠만륙천원이상이 객적게 업서진것이니 버로바꾸어치면 지금시세로 오전쩍! 논으로치면먹상등으로 륙백석거리! 이러케 엄청난 재물이 서울벗꼿구경에 소비되는것이다。

그들은 이런 큰돈을 『밤벗꼿』구경에 뿌려업새고 무엇을엇고 도라갓슬가?하고 식자들은 한탄하고잇다。

☆……지나간닷새동안도 그랫거니와 압호로남은 또 닷새동안엔 엄마나한 시골손님들이 이 『밤벗꼿』에 흘리여 몰려들것인가? 그들을 맛고보낼 경성역(京城驛)으로 이것을 타진해보면아직도 일만구천삼백스물여덜명의 관광단이 예약을한채 남어잇다니 지금까지의 수보담 삼할이나 더만흔수가 먼저다며간 사람들의 뒤를 이어 몰려오고야 말것이다。

이리하여 서울의 거리와 거리는 또 밝갓지안케『밤벗꼿』이나흔 돈물결이 치고야 말것이다。

各旅館非常團束

花節에모여드는鄕客을겨누는 惡黨跋扈를未然防止

요사이 장안에 꼿철이 무르녹아 경향각지의 꼿구경군들이밀려들어 시내 각려관은 자못홍성하야 잇는데 이기회를타서크고적은 도적들이 싀골손님의주머니를 노리게되여 시내각려관에는 도난사건이 빈번히 이러남으로 종로서에서는 관내각려관주인에게 일일이 좋지품미위특별히 미리경계할것을 전하엿는데 일반손님들도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겨울리말것이라한다

다라운詐欺漢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는 시내 대도정(大島町)일백사십오번지 전과륙범의 장사군(張士根)(三二)을잡어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 그는 시내 고시정(古市町)삼십오번지에 고용사리로잇는 김희순(金喜順)(二○)이란 젊은녀자를 감언리설로꾀여서 돈십원을 사취한것은 비롯하야 각처에서 무식한 녀자에게 십여건

宮城縣下大火

【仙臺電話同盟】이일오후입시이십분경에 궁성현궁리군 궁리정학하(宮城縣亘理郡亘理町學下)부근의 민가로부터 불이일어나서 백이십호를 전소한후 진화하얏는데 원인그라는방금조사중이다

의 사리를해버은것을지배하엿다

죽기自願하는 시럽슨두靑年

먹을것이업서서 죽으라는 사나히와 먹을것이넘처서 죽는다소동지는사람! 부럼의 소동도가지가지이다

충청남도 례산군봉산면봉림리(禮山郡鳳山面鳳林里)에 본적을 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구두수선업하는 리만구(李萬求)(三○)라는사람이 일일 오후열시반경에 시내팔판정(八判町)뒷산에 올라가서 양재물을 먹어 자살하라는것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이를지식혓스나 구지못한다면 먹을것이업서 죽으려는사람을 죽지도못하게하다고 날뛰으로 본서에데려다가 보호경속하고잇는중이다

◀일일오후 열시경에 시내안국정(安國町)창의문번지 홍주더(洪周基)(二五)가 무슨독약을 먹엇는지 거의죽을것가리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공부근안동(安洞)병원에 입원지료하야 깨여낫는데 나중에알고보니 불거리에서 (?) 흥나게만히먹고 그와가리 죽게되엿던것이라고한다

列車와人力車衝突 塔·乘·客·即·死

人力車夫는慘景보자逃走

며랑한불은 근처여시살상(殺傷)의친구을 내고잇다 일일오후여섯시사십분쯤 청진(淸津)발경성(京城)행 제오백사호 렬차는룡산(龍山)역으로 드러올지음에 룡산고관고부근에서 인력거와 충돌되여 타고가든 룡산로부구청부인 대고호길(大高虎吉)(六一)은 치여서 즉사하고 차부는 다행이 무사하엿스나 그광경을 보고 곳도주하엿는데 경국체포되엿다고한다

에 전신에타박상을 바더즉시부민병원에 입원치료중 이엿스나 동일오후여섯시쯤되여 드되여 절명하얏다한다

練習中戰鬪機 空中衝突

操縱者一名은即死

【立川電話電通】립천(立川)비행제오련대 제이대대 소죄근등(近藤)대대장 지휘아래 전투련습을하고잇든 비행긔두대가서로충돌하야 일일오전 열한시사십분립천정(立川町)상공에서떠러지는 바람에 조종하든 매진(梅津)소위는 즉사하엿다

驚馬殺主人

이일오후여섯시반쯤되여 부내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사백사십번지 집구루마모리하는 리소성(李素成)(三○)은 구루마를끌고가다가 돌연히 말이놀나 뛰여나는바람

自殺既遂、未遂

仁川市內에서兩件

【仁川】◀산근정(山根町)이십이번지 리인근(李仁根)(三○)은 얼마전부터 직업을잃고 생활난에울고잇든끄테 지난삼십일 오후십일시 다량의『칼모틴』을먹고 고민하고 잇는것을 부근병원에서 응급수당중이라한다

◀부천군(富川郡) 소사면(素砂面) 개봉리(開峰里) 리로마(李老馬)(三○)는 얼마전부터 실연을하고 고민하든끄테 지난삼십일 오후구시삼십분 상인천역착 열차가 오류동(梧柳洞)역을 통과할지음 뛰어자살하얏다한다

◀부천군(富川郡)다주면(多朱面)간석리(間石里) 박재봉(朴在鳳)의처 김이산(金益山)(三○)은 지난이십일밤에 수십간의의류를가지고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고 말엇다한다

自動車運轉手의 背後嚴探中

米突制實施後不美한氣味가보힌다하야 道警察部各署에示達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요사이 『택시ㅣ계가메ㅣ터ㅣ계로 바뀌면서 일부운전수들사이에 어떤 아름답지못한 거조가 보인다하여 크게 그들의 신변을경계하고 잇다한다。

즉 종래『택시ㅣ계로 잇슬때에는 운전수들이 마음대로주인들의 눈을 기이가면서 로금의 일부를 자기의 차지로、혜오다가져 잔돈들의 여유를 어더 서오든것이엿는데 갑작이『메ㅣ터ㅣ계라는 그들에게 잇서서 까다로운 새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박하고 또돈푼치 못한 수입을가지고는 도저히 목가가 비싼 오늘에 잇서 살림을 해나갈수업다는 의미에서 불평을 품기 느끼는데다가 경해서일부 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기회를 타가지고 그들 운전수에게 어떤 선동적 행동을 취하는 기미가 업지 안라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려는것이라한다。

그『택시ㅣ계가 업서지고 『메ㅣ터ㅣ』계가 실시되므로써 운전수들의 대우가 그대신향상되엿다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미미한 정도인데다가 소위 보수입이라는것이 거진 업서지다시피되여서 운전수들의 대부분은 【택시ㅣ계도 시대에 들이 돌어오든 부수입을 짜내이기에 각가지방법을 궁리하고잇스니 만치 압호로 생길 폐해를 업시하고저 하는때문이라한다。

그리하여 특히 도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이점에 류념해서 관내 각경찰서에 이것을 시달하는한편 압호로 어는정도까지 감시를하리라한다。

運動競技

病後練習不足으로 朴濟建君惜敗

鮮血淋漓한熱戰을展開 盛況이룬職業拳鬪戰

東洋拳鬪會後援會主催의 職業拳鬪戰은 二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 特設링에서 열리엇다 淸和한 스포ㅣ츠날씨에 祝福바더 二千餘觀衆이 雲集한가운데 崔一對朴殷燮戰으로부터 開戰된바 그戰績은다음과가트며 이날의메인이벤트『朴濟建(上海)對沈相昱戰은朴君輕快한『풋워ㅣ크』과非凡한『펀치』로 一般의 期待에저바림이업시 强靭性과 反擊力으로 一貫하는 沈君과 第七라운드까지는 左右훅크와 左스트레ㅣ트로 應戰하며 兩君모다鼻出血로 鮮血淋漓한 熱戰을 展開하야 滿場을熱狂케하드니 第八라운드에드러가 沈君의 左훅크와 右어퍼컷트는朴君의 顔面에 命中하니『그록기ㅣ』되여 二次나 따운하엿다가 마츰내 朴君TKO의 苦杯를드럿다 敗因은 病後의 練習不足이라는바 濟建은 朴君의 精彩잇는 鬪志에 今後의 健鬪를비러마지안엇다

【六回戰】 ◇…審判 徐廷權

○崔一 KO 朴殷燮×

▲…第四라운드三十五秒

【八回戰】

○金永植 KO 金容潗×

▼…第二라운드一分二十五秒

【十回戰】 ◇…審判 流澤勇次郎

○梁道元 KO 조ㆍ사크라멘트×

(三一對度) (二五對度)

▼…第七라운드二分廿五秒

【메인이벤트】

○沈相昱 TKO 朴濟建×

(一二一對度) (一二一對度)

▼…第八라운드終了後

◇…寫眞은 職業拳鬪戰光景

六大學野球리ㅣ그 明大優勝確定

【東京電話電通】二日의東京六大學野球리ㅣ그戰은明法、立帝各一回戰으로影響을가진試合으로 興味를集中케하드니 破竹의明大는法政에게辛勝하야 六勝一敗의成績으로 立敎는 帝大에게敗하야 二敗一無勝負、法政은三敗로되어 明治는假令對法政二回戰에敗하야도 結構優勝은確定的이다 昭和三年秋以來光輝잇는 優勝校로되엿다

甲子園職業野球經過

【甲子園電話電通】職業野球리ㅣ그戰第四日은 十二日甲子園球場에서擧行한바 成績은다음과가다

名古屋	0	0	0	0	0	0	0	0	1	1
金鯱	2	0	3	0	0	0	0	0	A	5A

セネタース	0	2	2	0	0	0	0	0	0	4
大東京	0	0	0	0	0	0	0	0	3	3

實業野球開幕

殖銀9 京電6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今春野球리ㅣ그戰은 一日京城運動場에서 午後一時에 入場式을마치고 同一時五十分부터 第一日의 一次戰인 殖銀對京電으로 開幕되엿는데 結局九對六으로殖銀勝

京電	0	1	2	0	1	0	2	0	0	6
殖銀	0	0	2	4	2	0	0	1	0	9

鐵道8 遞信4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今春野球리ㅣ그第一日의 二次戰인鐵道對遞信戰은 二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遞信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八A對四로 鐵道軍一勝하엿다

遞信	1	0	0	2	0	0	0	1	0	4
鐵道	0	1	2	0	0	4	1	0	0	8A

明大6 法政5

東京六大學리ㅣ그明法一回戰은 二日午後零時부터 神宮球場에서 三谷(球)棚上、郎井、關口(壘)四氏審判、法政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六A五로 明治辛勝

法政	0	0	0	0	0	0	5	0	0	5
明大	1	1	0	3	0	0	1	0	0	6A

立敎3 帝大3

【東京電話電通】東京六大學野球立帝第一回戰은 午後三時四十五分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敎先攻으로開始한바 三對三으로 補回戰에 드러갓스나 十一回까지得點업서 無勝負로되엿다 (日沒六時十三分)

自動車世界新記錄

【뷔인(유타州)同盟發電】英國人『조ㅣ지ㆍ이ㅅ톤』大尉는 廿九日 當地에서 擧行된 流線型自動車大會에 時速 一八五ㆍ八五哩의 世界新記錄을作成하얏는데 從來非公式記錄은 一三六哩이엿다

海外뉴ㅡ스

◇스포ㅡ스斷交=獨逸의『로카르노』條約破棄에 激憤한 白耳義는 對獨스포ㅡ츠斷交를 宣言하는同時에 今春行할 對獨劍術競技를 비롯하야 모든對抗競技를 取消하엿다

◇籠球會議結果=伯林에서 열리엇든 國際籠球會議의 結果 今番大會에는 米國規則을 버리고 佛國規則을 採用하기로되엿다는데 一敗者戰의 制度를取하기로되엿다

◇럭비運動의禍=米國에서의 昨年度 아메리칸ㆍ럭비로因한 死者는 三十名이요 負傷者는七萬五千九百人(內五萬五千四百四十名은重傷)인데 이외가티 多數選手의 災禍原因의 三割四分은當事者의 不注意요、六分은 用具、運動場의 不備이며 六割은 이競技의 特有인 危險性에 依한것이라한다

◇優勝者에게贈賞=獨逸奧林픽準備委員會는 大會優勝者에게對하야 優勝메달以外에 盆에심은 樫木을 贈呈하기로決定하엿는데 遠國優勝者에게도 携帶할수잇도록 完全히 包裝할터이라한다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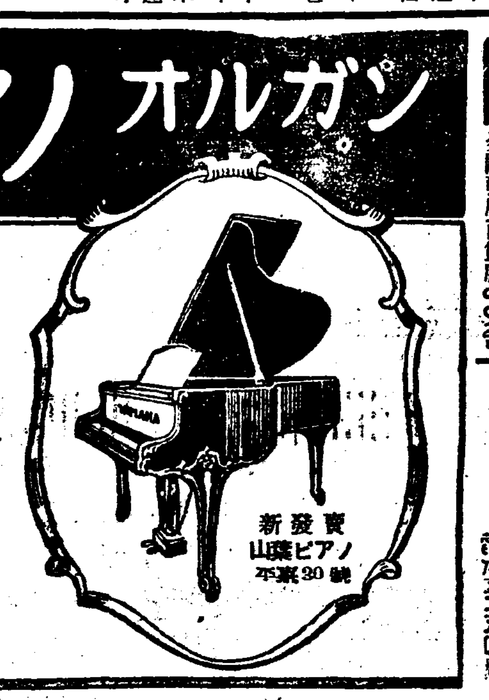
◇運動會=京城商工協會主催 第十回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는 奬忠壇公園에서◇第三回南大門市場商人運動會는 東大門外京城運動場◇城大開校十週年記念大運動會는 同校庭에서(以上全部午前九時開始)

◇野球=實業野球第二日 遞信對鐵道(午後一時)殖銀對京電(午後四時)京城運動場◇京城中等野球리ㅣ그戰 京工對京中(午後一時)京師對中央(午後四時)滿山球場

◇自轉車=全朝鮮自轉車大會 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

◇럭비=鐵道局對抗戰 午前十時 龍山鐵道球場

山葉ピアノ オルガン



子女들을爲하야 반드시 一臺를!

피아노 金五百圓부터
오루강 金三十圓부터

月賦案內書 目錄進呈

創業後 五十年 資本金 四百萬圓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全國에特約店이有함

림질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可恐할淋疾! [illegible] 로서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 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써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淋疾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 (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二一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電淡河七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五月一日ヨリ三日迄特別公大開 晝夜三回繰返映畫正午開演入替無 各等大人・小人・學生三十錢均一

今週の番組

▲ユナイト社超特作日本版 結婚の夜 名匠キング・ヴィダー監督作品 アンナ・ステン・ゲーリイ・クーパー主演

▲メトロ社超特作日本版 私のダイナ クラレンス・ブラウン監督作品 ジョン・クロフォード・クラーク・ゲーブル主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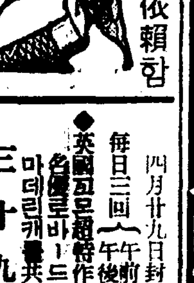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女優と詩人 成瀨巳喜男演出監督作品 宇留木浩・千葉早智子主演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三四番)

조흔家庭工業

돈버리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紹介



第一 [illegible] 의工業은여러분의家內總動員分業으로되는日用消耗品製造至簡單共用材料로自由로製造하야永久히 [illegible] 社와現金取引

第二 [illegible] 의新工業 [illegible]

大阪港區市岡西四丁目 內外貿易株式會社

四月卄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英國고오몬超特作映畫 名優로바ㅡ드ㆍ도ㅡ낫主演 마데리ㅡㄴ캐롤共演

三十九夜

米國映畫界에驚異的衝動을준 英國이나은大探偵映畫 全篇이興奮과스릴을흘린 今春最大의收獲!

◆獨逸우파超特作映畫 께테ㆍ본ㆍ나기主演

薔薇의寢床

新婚의밤을모르는新郞과 어엽분新婦의甘美淸新한로맨스

朝日世界뉴ㅡ스 數篇

(次週封切) 女性은求하다 (近日封切) [illegible] 아리랑第三篇、東道、處女總 [illegible]

全鮮館主 映畫殿堂 團成社 電光 (?)

外科 X光線

醫学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金 銀 (福) 白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 [illegible] 電話一三一四番

本店 東京市下谷區徒町

오월첫공일 어린이날

어린이날노래
(野球歌曲)

1 깃브고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일세 복된목숨 길이 품고 뛰여노는날 오늘이 어린이ー의ー날。

후렴 동모여 동모여 손을잡고서 아프로 아프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깃븐맘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ー가세。

2 깃브고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반도정기 타고난 우리 「어린이」 길이 길이 빼더날 새목숨 품고 즐겁게 뛰며 노ー는날。

칠백만소년소녀 우리들의선서문

1 우리는 어른보다 더새로운 사람이요 또한 한겹새시대의 압재비 될것을 스사로괴약합니다。

2 우리는 태양과가티 부지런하고 또한 태양과가티 광명정대한 사람이 될것을 스사로괴약합니다。

3 우리는 참된정신과 건전한몸을 기르기위하야 조흔말과 조흔글을 배우고 또한 조흔운동을 하겟습니다。

4 우리는 남의말이나 거짓말을하지안코 또한 좋나무와동물을 사랑하고보호하는 사람이되겟습니다。

5 우리는 남부끄경이나 쓸데업는 작난을하지안코공부를 열심히하며 또한 조흔 잡지를 읽겟습니다。

6 우리는 서로공경하고 약한동무를 도와 주고 또한 무슨업에나순서잇게차 일하는 사람이되겟습니다。

우리들의명절 짓거운오늘부터이 젓을굿게직히기로맹서합니다!

우리들의새명절 오늘이「어린이날」 이세가지결심으로긔렴합시다

리해신

오늘은 우리 조선만 어린이의 새명절인 오월첫공일입니다 이명절은 설보다도낫고 추석보다도낫고 엇더한 명절보다도 제일 나흔명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맛잇는음식을 먹고 새옷을입고서 기쁜 깃분 마음으로 이명절을 긔렴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그러나우리는 이명절을 긔렴하는데 잇서서 다만 맛잇는음식과 새옷을입고 깃분게 노는것만으로서만 긔렴할것이아니라 그보담도 우리는 새로운마음과 새로운행실로서 이날을 긔렴하지아니하면안되겟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날은 비단 우리 어린이들꺼만이 긔렴하는 날이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나나 옵빠나 모도 다가티긔렴하는 날인때문입니다。그런데 우리 어린이날을 엇재서 어른들 까지 긔렴하느냐하면 어린이는 어른들보다도 더 소중한 때문이라고합니다。올흔 어른들도 나라나 사회를위해서 만흔 일을하섯고 만흔 공을끼치지마는 그보담도 래일의 나라를위하고 래일의 사회를위해서 울케 일을할사람은 우리들인때문이라고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항상 새힘과 새뜻으로 새희망을 품고서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바를 허되이하지안토록 힘을써야하겟지마는 특히 오늘에와서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한번 더굿게먹고 또한 이러한 결심을 늘실행하기를 맹세하여야 하겟나 안되겟습니다。아름답은 우리들이 중에 마기고 귀여하는데 우리는 지각도 업지안코 공부도 잘 지아니하면 어른들께서 밧는 대접이 아주험되게되지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날이되면 다가티 모혀서 뛰고 노래하고 밧기는동에서도 서로 굿게 맹세하는 선서문이잇지안습니까? 이선서문은 우리가 잘로 실행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첫재는 우리들의 몸을 튼튼하게 가저야하겟습니다。건강한 몸을가진사람은 정신도 건전하다고합니다。그러니까 아침잠을자지말고 밤에도 너무 늦게놀지말고 나제도 공부할때는 해도 조흔운동을 만히하면 또한 몸을 매양 깨끗하게가저서 무엇보담도 우리몸이 튼튼해야 하겟습니다。그다음에는 공부입니다。운동만히하고 집정게노는것도 조치마는 이것이 넘우 도를넘치면 도리혀 건강하지도 아니올시다나 공부에 재미를 못치지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노는날이지에는 또한 공부도 만히해야 하겟습니다。그다음으론는 동무들께리 서로 사랑해야하겟습니다。동무를 미워하며 욕이나하고 쌈질을하는것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무들께리 서로 사랑하고 도아주기로 합시다。우리는 다가티 이 세가지결심으로 우리명절어린이날을기념합시다。

"어""른""들""께""드""릴""말""슴"
우리들의희망은어린이에게 애기들기를때이러케합시요

어른들은 어린이를 다가리 태일에 잘살기위하야 이몃가지를 삼어둡시다

어른보다더새로운사람입니다

내아들을 내딸을하고 자기의것거가리 아지말고 자기보다 한걸더 새로운시대의 새인물인것을 알어야한니다 자기마음대로 굴리려하지말고 밥둑이어린사람의 뜻을 존중하도록하여야한니다

어른보다더놉게대접하십시오

어른을대접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올나안저서 싹을 나려누르면 그나무는죽어버립니다 원줄기부리가 그싹을위하야 그나무(그집운수)는 빼처나갈것입니다

결코욕박지르지마십시오

조모의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한다는 잘못된생각으로 그자녀의일생을 망처놋습니다 옷바지를때마다 빼더나가는 어린이의기운은 밧작밧작줄어듭니다 그러케길리운사람은 공부를암만만히해도 크게자라서 뛰어나는이될수가못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생님이되고 맙니다

생활을항상즐겁게해주십시오

십섭하게 것봉업시 자라는것처럼 어린사람ー자라가는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업습니다。항상 즐겁게 깃겁게 해주어야 그마음과 몸이 활작 커가는것입니다。

항상칭찬해가며길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저넘어질라고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입니다。잘한일에는 반듯이 칭찬과 독려를해주어야 그어린이의 용긔

(屬性)와 지신(自信)하는 힘이 늘어가는것입니다。

몸을자조주의해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출기나 몸과 마음이 어떠케 변헤가나 이것을 항상 주의해보아주십시오。평상시에 그냥내버려두엇다가 잘못된뒤에 야단을하거나 후회하는것은 부모들의 큰잘못입니다。

잡지를자조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그래야 생각이넓고 커짐으로훌른 이오 또한부드럽고도 고상한인격을가지게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주지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주도록하십시오。

이것을 조히써서 벽에부치신후 자조읽으시며 실행해주십시오 (朝鮮어린이날中央準備會)

귀찬타고짜증을내지마십시요

홈이 우리들가정에서 집안에 걱정되는일이잇거나 부모들의 몸이편치못하면 공연히 서로짜증을 내는수가만습니다 심한집안에서 내외간에 싸홈을 하엿거나 서로모님에게 사설을 듯고나서 분푸리는 어린이들에게하느라고 죄도업는 자녀들을 두드리는일까지잇습니다。이러한것은 전혀한 어린이에게 아주나쁜영향을 줄뿐만아니라 그성격을 음울하게하거나 집안에자미를 몬붓처서 외생을 그르치게하는수가 잇습니다。그럼으로 이러한짓을하는것은 부모의 큰죄악입니다。

少女誘引中國女子

삼십일오후四시경에 부내욱정(旭町)일정목노상에서 이정숙(李貞淑)(八)이란어린아이가 무심히장난을하던중 들연중국녀인은 삼십사오세가량된 녀자가 어린아이를안고 유유히 중국인주택으로 중국인이 어디로인지 데려가려하야 남미창정부근에서 범인은그만 놋처버렷다 이급보를바든 본정서에서는 최근어린이들의 실종사건이 빈발함으로 시유인마수의 한사람이아닌가하야 목하엄밀히 유인마수를 수사하는중이다

本社講堂消息

京城府錦昌町 金在茂君과 李亮淑孃의結婚式은 今三日午前十一時 本社講堂에서金潤晶氏主禮로擧行 래빈경수도 잇다하며 일반의만흔 괴람을 환영한다고한다

日曜講話

◇朝鮮中央基督教靑年會午後三時
信仰의生活　金觀植氏
◇貞洞教會　午前十一時
勞働과基督教　裵亨湜氏
午後八時
마리아의選擇　裵亨湜氏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信仰의體驗　金永燮氏
午後八時
未定
◇石橋教會　午前十一時　任永信氏
社會的正義
午後八時　朴淵瑞氏
廢墟의어둠속　金容鍊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基督教는靑年으로부터　金活蘭氏
午後八時
宇宙間惟我一人　洪淳浩氏
◇阿峴監理教　午前十一時
宗教와獻物　李東旭氏
午後八時
어찌살까　任英彬氏
◇濟川監理教會　午前十一時
新生의秘義　金洙喆氏
午後八時
非常時信仰靑年　廉俊約氏
◇三淸洞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張樂道氏
午後八時
應答받는祈禱　金麟熙氏
◇宗橋教會午前十一時　申公淑氏
絕對慰安
◇復活社講堂　午前十時半
義人의死　金敎臣氏
◇覺皇寺午前十一時
無量壽經講話　朴漢永氏

어린이行列을筆頭 商工層總動員 兩大運動會
日氣는念慮! 흐리고細雨가잇슬듯
三春의頂角! 今日의行事

개나리꼿 살구꼿 벗꼿들이 고읍게다투어 만발한위에 신록(新綠)이 바야흐로 무르녹으려하는 오월첫공일 그다지 덥지도안코 춥지도안흔 조흔날새에 바자를마추어 삼일에는 창경원(昌慶苑)경복궁(景福宮)등의 벗꼿구경을 비롯하야 「어린이날」에 운동회에 자전거 대회에 야구련맹전에 정성서동사만지만은 봄이 젊은이 어린이 할것업시 총동원되려는상태이다。

◇

「어린이날」── 삼일은 「래일을 살리자」 「희망을 살리자」 하는 표어미테 조선의 장래를 두어개에 떠맛흘 어린이들을 총동원식히는 십오회재의 어린이의 새명절이다 오늘은 전조선은 물론, 멀리 만주, 일본내지에 가잇는 조선어린이까지 내외각지 삼백여소년단체가 총동원하리로서 경성부내만 상십여개 소년운동단체의 팔천여명 어린이가 오전열한시에 부내 원서정(苑西町) 휘문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 모히여 축하식을 마춘다음 오후一시 대(隊)를 지어 악대를 선두로 시내 각처를 행진하야 어린이의 시위행진을 하기로 되엇다 부내의 어린이들이여! 여러분의 명절을 축복키 위하야 정각까지휘문고보운동장으로모히라

◇

경성상공협회 련합대운동회는 장충단(獎忠壇)에서, 남대문시장상인련합대운동회는 동대문밧식산은행(殖銀)운동장에서 각각열릴러인데 이두운동회는 경성부내 전조선사람상공업자들을 총동원하는 운동회이마큼 그리고 각상점에서 모든지혜를 다짜서 광고의장(廣告意匠)을 꾸미러이며 가장우수한 선수를 보내어 우승을 다투리이니 이두운동회야말로 부민운동회라고 일기를 수도잇는터로서 부민의 발시길은 장충단으로 식은운동장으로 몰려들러이다

◇

경성운동장에는 경성자전거상공조합(京城自轉車商工組合)주최의 자전거대회가잇고 축구실업야구련맹의 야구시합이잇서 각각편을 손짓하고잇다

◇

경성부민의 오아시스라고도할 창경원을비롯하야 경복궁 덕수궁 남산약수(南山藥水)등의 벗꼿이 지금이한참이고 개나리 진달래 살구꼿등도 아직도고흔자태를 자랑하야 부민들의 차저올때를 고대하고잇다

◇

오월의 첫일요 삼일은 꼿구경에 운동에 빗튼노리에 피난에 모든것의 향락의 전날일이다 측심하만부민은 밧길을 아니내놀수업스러니와 경성측후소의발표를보면 어찌면비가올지도 모른다하니 다소걱정스럽기는하다 큰비는 업스리라고한다

"어린이날"旗行列 仁川署에서禁止

【仁川】 인천소년회후대 에서는 례년과가티 오월삼일 어린이날을 기렴키위하야 이날은 내리례배당에 동회회를 개최하고 동삼일에는 천여명아동의 기행렬을하고자하얏든바 지난이일 인천서에서는 동단장 박남칠(朴南七)씨를 통하야 기행렬은 중지하고 동회회만개최키로되얏다한다

삼일 오전아홉시부터 우혜시반까지 그대항운동장에서 긔념운동회를 성대히 거행한다는데

勇敢한少年樵童
狼穴에드러가색기三頭生擒

【開城】 개풍군 중서면 려릉리 두문동(開豊郡中西面麗陵里杜門洞)김영도(金永道)(一三)란초동은 지난사월 삼십일오전열한시경에 그동리 조동수(曹東秀)(一五)외세명이 짝패를 지어 부근산속으로드러가 나무를하든중 전기동수가 그엽헤늑대굴이 잇는것을 발견하자 영도는 이간이넙든그 굴속에를기여드러가 늑대색기를 잡어가지고나왓는데 이를본어미늑대는 막우달겨들며 이들을 해하려는것을 작대기로 위험을방비하고 늑대색기 세마리를 잡어가지고와서 동면주재소에 밧첫다고한다

觀櫻月尾島까지 自動車通行禁止

【仁川】 월미도벗꼿은 바야흐로 만발하기시작하야 관앵객이 매일평균수만명을 돌파하야 대혼잡을 일우고잇슴으로 인천경찰서보안계에서는 교통사고방지책으로 월미도를 일순하는도로에 한하야 오늘이일부터 자동차통행을 림시금지하기로되엿다한다

不正衡量不應한다고 "生命船"들을沒收
富川德積島자갈運搬業者 五千關係民이戰戰

【仁川】 부천군(富川郡)영흥면(靈興面)일대와덕적도(德積島)일대는 『자갈』을 실어 인천부업자들에게팔아 이것으로 생활하야가는 범선이 실로일백칠십여척에달하고잇다 근일인천의발전과한가지 각종건축이 늘어가는 기회를엿본 청부업자들은 부정형기를사용하야 『자갈』을사드리고잇다한다 그내용을조사하건대 장흥척 넓이 삼척높이일척의 상자에 가득하게 『자갈』을채이여 십평을운처서구입한다는데 실은전기 용기가십평이상이된다 이에전기선주들은 청부업자들에게 이의를말하엿든바 그들은 구입을거절할뿐아니라 자기네들이사준배를 몰수하야일조 생명선을잃은 사람도적지안을뿐아니라 전기지대의 사천주민들은 큰불안중에잇슬뿐아니라 이중착취를당하고잇다한다 또한청부업자들은 큰상자로서 매하야 부정리득을취하고잇서인 일반사용자에게는 적은용기로판 천서보안계에서는 실지를조사하야엄중취체하리라한다

"라듸오의聽取者" 五二、八五三名!
官公吏가絕大多數

소화십년도말현재 조선안에서 『라듸오』를 시청취하는사람은 조선인이 일만사천오백삼십칠인 내지인이 삼만칠천구백오십일인 외국인이 삼백오십오인으로모다 오만이천팔백오십삼인이요 소회구별로 시청자수를 비교해보면 일만이천칠백사십이 경중된셈이다 그리고 처지직분포상황과 직업별을 조사하여보면 시상동에는 경기도의 이만사천팔백이십삼인이 가장만코 황천지 평북지방인이가장만코 제일 청북도의 구백이십칠인이 적으며 신설부(府)중에는 경성부의 일만팔백사십이인 부산(釜山)의 삼천팔백사십이인 인천(仁川)의 일천칠백이십삼인 가장만흐며 목포(木浦)의 이백팔십칠인이가장적고 직업별로는 공무리(官公吏)와 군인의일만오천팔백삼인이 가장만코 한성상업에 종사하는 이 예술가와 일백백 삼십구인이 가장적고 조선사인이 가장적은 일만삼천명의 시설수만 보더라도 조선은 그야말로 원시 그대로 팝광라만인것을 볼수잇다

京城帝大運動會

개학십주년(開學十週年)을 마지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大)에서는 이일의 긔념식에 계속하야

帝大紀念講演會

경성제국대학에서는 개학십주년을 긔념하기위하야 오는오월사일오후일시부터 시내부민관에서긔념강연회를 개최한다는데연제와 연사는 다음과가트며 입장은 무료라고한다

血液型研究進展에對하야 京城帝國大學教授 佐藤武雄

宋代의繪畫에對하야 同上 田中豐藏

二千接客業者 健康診斷을施行
仁川署衛生係에서

【仁川】 월미도의사구라노리로인하야 외지상춘객의 출입이빈번하야 잡으로 인천서에서는 인천의 접객업자에게 좌기시일에 건강진단을 시행하리라한다

四日 午前九時부터十二時까지男子 午後一時부터同四時까지女子

五日 午前九時同十二時까지男子 午後一時同四時까지 女子

子直轄、水上、宮町、下仁川 花町、外里、上仁川 牛角 花平 萬石町

以上派出所管內는警察署構上에서 組敎는 遊廓病院에서施行한다고

電車에不良輩들 단단히取締해주

▽요지음 경성시내에는 꼿구경하려 모혀드는 시골사람들로 전차라는전차는 만원초만원이되여 어린이와늙은이는 중지럼 전차를어더탈수업는 형편으로 더구나낫춘모르지마는 밤이되여 창경원가는전차들은 이야말로 중나눔팍짝이지 전차라고 할수업는 형편에 화생이지를 몰린 부녀자들이지 모르겟지마는 적지안흔 전차에 오를때는 일부러 녀자들을 압헤두고 근방숙대 무밀고 끼으고 행패가 하다는 악질 악당들은 남의중충을 엿보고다니는쓰리도 잇다 경찰에서는 쓰리는 물론이지만 이런 불량배들을 좀 단단히 취체해주지못할가요

昌慶苑에酒酊배이 모라낼수업슬가?

(淸進洞O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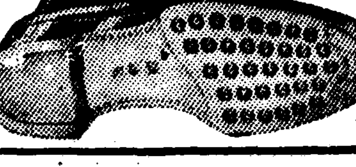
▽창경원의 사구라노리를 가보면 몃해전까지는 경내에서 술먹는것을 금하야 주정군들이별로보이지를 안터니 근년에와서는 경내에서 파는것은 허락하지 안호나 가지고드러와서 먹는것은 관계업다고하야 누구나할것 업시 술지경를 버리고 질탕하게노는꼴도 볼수업거니와 술이취한뒤에는 비틀거리며 부녀들을 희롱하며 도라다니는 꼴들은 참아볼수업스니단연히 금지해주오(淸進洞O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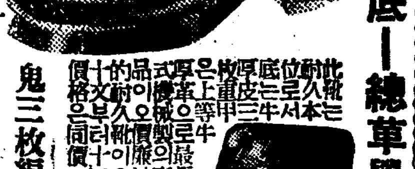
絕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ー大販ー市價의半額
○註文殺到하야業者로注文代金引換으로申請하기바람
○送料는買主負擔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全)

靑年訓練總革靴◇

上等黑皮製

一足 三圓五十錢
新案 二個年以上 絕對

鬼三枚底ー總革學生靴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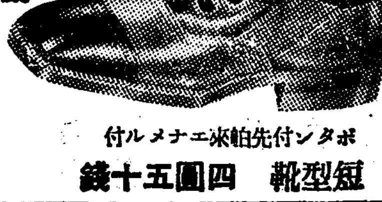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先エナメル付一足 三十錢高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上等總牛皮底品質保證
深型靴 五圓五十錢

ボタン付先舶來エナメル付
短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金二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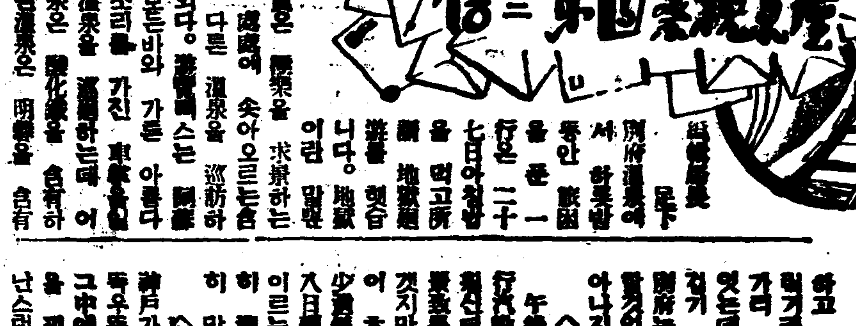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出來町電停前)
電話東五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地獄巡"後神戶로

川崎造船과 大同紡寸工場見學



神戶에서 特派員 咸尙勳

紙面關係로 昨下 別府溫泉에서 하룻밤 동안 旅團을 푼 一行은 二十七日아침밥을 먹고는 別府 地獄巡禮를 했읍니다. 地獄이란 말만 이오 實은 溫泉을 求景하는 것인데 周圍에 솟아오르는 含有物이 다른 溫泉을 巡禮하는것이외다。 蒸氣와 가스는 周圍 山서 본든바와 가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車掌을 앞고 各溫泉을 巡禮하는데 어떤 溫泉은 硫化物을 含有하고 어떤溫泉은 明礬을 含有하고 어떤것은 진흙속에서 물이끓고 어떤 溫泉은 바다가티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잇는데 그 물빛이 맑고 또 적기 二百餘種이 되어 實로 別府는 갈거 山밋 바다가 잘가장이어서 溫泉이 噴水가티 솟아나지 안는곳이 업습니다。

◇

午後 大阪 우리는 어제 神戶行汽船을 탓습니다。 날것은 별 湖江이、 쇼ㅡ쇼ㅡ가른 瀨戶內海의 景色을 滿足히 鑑賞할수잇섯겟지만 밤이오 또 多少 날이 흐리것은 우리旅行에 多少遺憾이엇습니다。 그러나 二十八日朝 高松으로부터 神戶에 이르는 景勝만 가지고도 能히 瀨戶內海의 絶勝은 넉넉히 맛보앗다 할수잇습니다。

◇

神戶가 次次 가까와지자 우뚝우뚝한 建物、 林立한 煙突 그中에도 川崎造船所의 하늘을 찌를듯한 크레ㅡ인 큰 은 유난스럽게 우리의 注目을 끌엇습니다。 大阪支局長 金氏、 商業會議所主任 朴氏、 神戶支局長 [illegible]氏와、 商工會議所의 松浦氏、 兵庫縣商工課 伊藤氏等의 歡迎을 바다 神戶에 나려서 하야 그길로 川崎造船所 造船工場을 차즈니 同工場營業部長 末澤氏는 멀리 朝鮮에서 온 우리 一行을 關心으로 歡迎하는 말을 하고 川崎造船所의 內容을 紹介한後 사람을 시켜 工場의 一部를 案內하야 주엇습니다。

◇

川崎造船所는 누구나 아는 바와가티 日本重工業의 大部門을 맛고잇는 工場인데 그 工場은 이 造船工場外에 製鐵、飛行機、製鋼의 四工場이 잇는데 資本金이 八千萬圓、所員이 三千人、從業員이 二萬名이라 하는것을 보면 規模의 얼마나 큰것을 알수잇지 안켓습니까 우리의 見學한 工場은 造船工場의 一部인데 이곳에서는 軍艦(驅逐艦、潛水艦) 商船(客船)은 勿論이오、 汽車、 電車、 [illegible] 機械、 鐵骨、 水力發電機、 水力及火力發電所、 [illegible] 等 重工業의 [illegible] 치고안만드는것이 업습니다。 그쇠를 파는 소리、쇠를 붓는 냄새 實로 工場을 求景하는 이의 精神과 肉體를 散亂케 하얏습니다。

◇

大同紡寸 兵庫工場은 主로中國、亞弗利加로 가는 紡寸을

만드는 工場입니다。 [illegible] 아니지만 그 分業的 [illegible] 치 안흘수 업섯습니다。 그러고 工場의 [illegible] 日光이안들고 通風이 [illegible] 한것은 [illegible] 할바가 아닐가 생각되엿습니다。

◇

見學後 우리는 神戶商工會議所理事 [illegible]氏의 招待로 [illegible] 氏는 우리 一行을 [illegible]으로 歡迎하고 여러가지로서로 [illegible] 하얏는데 氏의 意見은 朝鮮도 從來의 生産一方主義를 버리고 日本內地工業의 [illegible] 力說하얏스나 氏는 結局 工業과 農業間의 不均衡、大資本과 小資本의 對立、統制經濟時代에 잇서서의 自由主義의 幻滅을 意識한 氏自身의 論理에 矛盾되어 [illegible] 하여지고 말앗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神戶商工會議所의 好意의 歡迎을 [illegible] 하는것은 아닙니다。(四月二十八日發)

◇

夏季은 神戶中[illegible] 汽船과 上陸한 [illegible] 一行

產業

三重要法案은 別個法令을 制定

産統法、肥統法、自動車工業統制法等 總督府의 方針決定

特別議會에 提出될 重要法案中、直接 朝鮮에 關係잇는、重要産業統制法案 重要肥料統制法案 自動車工業統制法案의 三大法案의 朝鮮施行에 對하야서는 殖産局이 中心이되어 關係局과도 協議를 求하야 總督府로서의 態度를 考究中이든바 總督府로서는 右三法案모다 朝鮮의 特殊事情에 鑑하야 日本內地의 法令을 그대로 朝鮮에 適用치안코 朝鮮獨自의 立場에서 別個의 法令을 制定하기로 方針이 決定되엇슴으로 그間의 意見을 附하야 法案中의 今井田政務總監에게 原案을 送附하얏다 近近 關係各省과 折衝이 開始될것이다

朝鮮硫化鑛 昨年은五萬噸

今年은一層增產

硫化鑛需要의 增加는 硫安生產의 增이오 그 增產은 全日本的關心을 끄을고잇는데 朝鮮內의 硫化鑛鑛開發은 그拍車로되어 十年度에는 一躍五萬噸으로 激增하얏는바 十一年에는 다시 新埋藏地帶의 發見、本格的作業으로 產額은 一大飛躍이 期待되고잇다 現在 作業中의것은 江原道金化郡一帶를、鐵原、昌道、金石、金昌、安峽、日鐵、金華、中川、各鑛山으로 十年度은 五萬噸에 達하얏는데 다시 江原道에서는 遂北(日鐵)朴春琴昌得의 各鑛山이 各히 進行되고 그他 江原道、伊川郡、咸南甲山、端川에 洛洞惠興等의 有望硫化鑛地帶를 發見하야 此等도 모다 作業에 入하기로되엿다 따라 硫化鑛의 自給은 此等의一齊作業에 依하야 確立이 머지안타고 期待되고잇다

馬山濁酒品評會

【馬山】馬山稅務署에서는 管內各濁酒釀造場의 濁酒를 모아 品評會를 지난二十八日 馬山稅務署內에서 開催하얏는데 參加한 釀造場이 四十이나된다고한다

엽수히 못녀길 舍人廉價粟

年產二千七百餘石

【舍人】平南 順川郡舍人場方의 特產物中 林產物인 栗의 生產은 近年에 大端히 急增하고 잇는데 其일홈은 아직까지 널리 알리지 못하엿스나 產額은 年產二千七百餘石을 突破하야 年年增額의 參出을 보이고 잇스니 決코 輕視못할바 主要產物로 되어잇다 그럼으로 當局에서도 生產增加、品質向上에 留意하야 栗苗를 補助增殖식히는 一方 栗採集者等을 勸獎하야 採栗獎勵한다는바 現在는 松嶺、安國等山間 村落에서 出回하면 아닭스럽은 밤송이는 보기도 조흐려니와 구어먹는맛이란 다시업을 美味이다 年年十月頃이 되면은 舍人市場은그야말로 「밤방」이되고마는것이니 하로 二百餘名이 出廻되며 이것을 실는는 貨物自動車도 一日에 十餘臺式드나든다 平壤、熙川、寧邊、黃海道、咸鏡道까지 其廉價를 휘날리고잇어 앞날을 더욱 期待하는바크다

漆谷、星州郡叺生產

【倭館】倭山穀物檢查所倭館支所의 統計를보면 漆谷、星州兩郡에서 生產되는 叺은 籾用叺과 肥料叺을 合하여 去年에는 三十八萬枚의 놀라운 數字를 보이고잇는데 그價額은 五萬四千餘圓인데 農家에서는 이叺이나 마저서 生活을 보태어나가려함으로 그生産數量은 年年히 增加되어간다고한다

日本마그네原鑛增堀

日本마그네에서는 日本內地의 製鐵增發와 自社城津工場의 能力擴張等으로 明年부터 마그네原鑛의 增堀을 計劃中인데 現在 一年間 採鑛五萬噸을 六、七萬噸으로 增加할模樣이다 그리고 近近山元으로부터 局鐵線까지의引込線四粁를 敷設할計劃이라한다

日本마그네輸出品製造 日本마그네城津工場은 三月操業以來 約一千噸의 마그네샤煉瓦를製造한바 努力試驗成績이 頗良함으로 今後의 製品은 主로 歐洲輸出品을 製造하고 現在의 在庫品은 全部日本內地市場으로 賣出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現在 獨逸其他로부터 一口六千噸의 注文을 비롯하야 約一萬噸의 注文이잇다한다

日穀玉蜀黍購入量

【平壤】平壤府內船橋里 日本穀產會社에서의 昨年產 朝鮮產玉蜀黍의 購入量은 一萬二千噸에 達하여 再昨年의 三千餘噸에 比하여 約四倍에 及하는 盛況이다 그런데 昨秋收穫物은 大體로 結氷前에 終了햇스나 아직 鴨綠江이 解氷되지못햇든 것이 解氷과함께 昨今 新義州로 向하여 搬出되고잇서 압흐로도 購入이 繼續되리라한다

製品의三分二 滿洲輸出計畫

朝窒石鹼販賣策

朝鮮窒素의 石鹼은 今後 滿洲로 積極的으로 進出하기로되어 目下 日產 三十噸能力을 四十五噸으로 增產計畫을 樹立하고 準備中인바 이것이 完成되는때는 滿洲二、朝鮮一의 比例로 販賣할 方針으로 今年은 于先 滿洲에 二十萬箱、朝鮮보다 [illegible] 狀況에 置하기로되엇는데 이미 滿洲에는 [illegible] 豫定이다

產繭倍增目標 養蠶을獎勵

盈德郡의十個年計畫

【盈德】慶北盈德郡은 從來로도 養蠶成績이 良好하나 大概經營範圍가 極小하야 春秋蠶合하야 五千六百餘枚掃立하야 此收入을 一般農家 每戶當에 平均하면 小數에 不過함으로 郡當局에서는 恒常遺憾으로 생각하든바 農村振興은 養蠶獎勵에잇다고하야 今後十個年間에 產繭을 只今의 倍以上으로 產出할計劃으로 養蠶農家每戶平均當 桑田一段步設置目標로 去三十日 各面農業職務擔任者協議及 蠶業講習會를 郡會議室에서 開催한바 盈德郡蠶業十個年擴張計劃은 이날에 樹立되엇다고한다

產◇業◇短◇信

▲蔚山 慶南蔚山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 蔚山公普校에서 第一期 定時總會를 開催하엿섯다

▲漁大津 漁大津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八日 總代會를 開催하엿섯다

▲靑陽 靑陽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當地公會堂에서 第九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注文津 注文津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同組合事務所에서 第十七回定期總代會를 開催하엿섯다

▲咸陽 咸陽產業組合에서는 四月二十七日 午後二時부터 同組合事務所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郭山 平北郭山市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五日 第十七回定期總會를 郭山天道教宗理院에서 開催하엿섯다

▲守山 守山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三日 正午부터 同組合事務室에서 第三回定時總會를 開催하엿섯다

▲大楡洞 平北大楡洞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四日 當地壬申俱樂部에서 第九回定期總代會를 開催하엿섯다

日用商品市況

二日 京城府內 海產物、砂糖、及 麥粉市勢는 大體다음과갓다

▲明太 保合 明太는 北鮮方面의 入荷가 [illegible] 不振하다 [illegible]

▲미역 保合 미역은 [illegible] 現市勢는 一束(二十斤)에 [illegible]

▲靑魚 低落 [illegible]

▲海苔 小低 [illegible] 在荷도 그다지 [illegible]

▲大口魚 保合 [illegible] 現在 市勢는 二十五錢乃至 二十六錢으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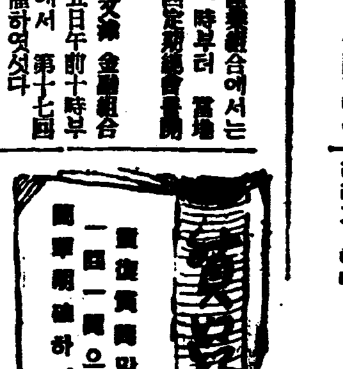
▲조긔 活況 [illegible] 現市勢는 一駄(一千尾)에 對하야 四十五圓가량이다

▲砂糖 保合 砂糖은 [illegible] 市勢는 百斤(六十斤)에對하야

白砂糖	二三、八八
黃砂糖	二〇、八八
黑砂糖	一一、八八
分蜜糖	一七、三〇

가량이다

▲麥粉 保合 麥粉은 [illegible] 一袋에對하야 [illegible]



問 一、회비어가 錦木綿纖維라하오니 이것으로 象牙와가티 [illegible]잇게 薄板으로 만들수잇습니가 其製造工場이 어데잇습니가

二、세루로이드(薄板形)을 注文코저하오니 製造工場住所를下敎하시오 (茨城欲知生)

答 一、纖維素로 製造하에는 此를 세루로이드化하여서 加工하면조흡니다 象牙와가튼 耐火力은 업습니다 耐火性이 必要하면 베ㅡ크라이트製品即石炭酸合成樹脂가조흡니다

二、販賣處 堺市七道西町三〇 大日本セルロイド株式會社

特別議會提出될 經濟關係法案 【六】

土地賃貸價格改訂法案

現行地租法의、課稅標準인 土地賃貸價格은 昭和十二年末을 期限으로 改訂하기로되어잇는데 그 改訂에關한 法律案이 이것이다 即 現行의 土地賃貸價格은 大正十五年四月一日現在의 것으로 今回의 改訂은 그後 滿十年에 該當하는 昭和十一年四月一日現在의 賃貸價格을 昭和十一年十二年의 二個年에 亘하야 調査決定하고 昭和十三年 一月一日부터 實施하려는것이다 그런데 그改訂의 要點을 示하면 如左하다

一、現行法에는 그第十一條에 「賃貸價格에 依하야 算出한 地租額이 從前의 地價에 依하야 算出한 舊法의 地稅額의 三倍八割을 超過하는 土地에잇서서는 當該法의 地租額三倍八割에 相當하는 金額을 百分의三、八로 除한金額으로써 그 賃貸價格으로함」이라고 規定되어잇다 即 이規定은 從來의地租法을 곳치어 新地租法을 採用하게되어 地租額이 急增하는것에對한 緩和規定으로 三、八倍以上에는 地租額을 增加식히지 안흐려는것이다 이規定은 存續하기로하고 三、八倍의 規定을 四倍로 改訂하는것

一、地租收入은 全額에 잇서 減收케된다 即 地租中 田租가 過半을 占하고잇는데 이田租의 標準은 小作料이오 또 田地의 小作料는 大概 物納이다 그러고 田地의 小作料收出을 過去 五個年의 平均米價에 依하야 算出한 것이 今回는 昭和六、七、八、九、十의 五個年의 平均을 取하기로 되엇다 現行의 田地賃貸價格은 大正十、十一、十二、十三、十四의 五個年 平均의 米價를 基礎로하는 小作料이다 前回는 米價가 比較的 高位에잇섯고 今回는 米價가 相當히 下落한 해를 包含하야 前回의 米價平均三十八圓임에 對하야 今回는 三十二圓으로되어 잇슴으로 田地의 地租收入은 相當히 減退하는 一方 宅地의 價格은 前回와 그리 變動이 업서 結局 租稅收入이 相當히 減하게 되엿다 右外 過去五個年에는 東北地方을 비롯하야 各地에 災害가 頻出하야 이에對한 參酌으로 보아도 相當히 減收케된다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現行徵收法第五條第二項의 規定에依하야 國稅中 市町村에 그徵收를 委任한것에 對하야서는 그徵收額의 百分의三에 相當하는 額과 納稅告知書一枚에 對하야 二錢의 比例로서 計算한 金額을 市町村에 交付함이라고되어잇다 이交付金規定은 都市農村을 不問하고 一律主義로되어잇슴으로 實質的으로 不均衡을 生하고잇는데 이不均衡을 是正하기爲하야 現行의一律主義를 廢하고大都市와農村과의間에 差等을 付하야 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의 效果를 擧하려는것이 今番의 改正趣旨이다 이제 左에 그要點을 示하기로한다

一、徵收交付金總額約六百萬圓은 그대로 變치안는것

一、徵收額의 百分의三에 對하야 差等을 付하고 農村에對하야서는 相當히 引上할것

一、告知書一枚當二錢도 差等을 付하고 同樣 農村에 厚히하고 大都市에 薄하게할것

一、市町村의 差等은 人口를 標準으로하야 適宜히 等級을 지을것

一、以上의 改良의 骨子는 法文에는 簡單히 記載하기로하고 改正의 內容은 主로 勅令에 讓할것

以上과如하야 現行의 基礎法은 明治三十年의 制定으로 現下의 事態에 副치안는것이 만허 今番의 改正은 오히려 時機에 뒤느진感이잇다

法律第四十五號中改正法律案

所謂 通商擁護法의 期限延長의 法案이다 即 同法은 昭和九年五月一日부터 三個年을 期限으로 施行한것으로 昭和十二年四月末이 滿期로되어잇는것을 三個年 延長하는것이다 法의 骨子는 諸外國이 日本輸出品의 輸入防遏을 目的하고 不當한 關稅引上 그他 行爲를하는 境遇에는 이에對한 對抗手段으로 當該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對한 關稅를 引上하는 權限을 政府에게 與한것이다 本法施行三年間에 加奈陀에對하야 法의 發動을 보앗다

關稅定率法中改正法律案

植物性揮發油、아스피린、안치피린、피라미돈、탄닌酸、[illegible] 鐵(帶鐵、리본)、알미늄、알미늄合金、[illegible] 等에 對하야 關稅引上을 行하는것으로 그引上率은 礦油關稅는 例外로하고 大體現行法從價五分의것을 四倍가량 引上하려는案이다。

이 改正은 要컨대 日本의 化學工業의 進展을 表示하는것으로 從價五分이라는 關稅로서는 그리 意味가업는 稅率을 二割程度로 引上하야 當該產業保護의 立場을 明白히 하려는것은 即 國內의 當該產業이 어느程度의 進步를 示하얏다고할수잇다。 此中 알미늄이 特筆할만하다 알미늄工業은 國防的으로보아도 重要한것임에 不拘하고 日本에서는 그原鑛인 보ㅡ키사이트가 업슴으로 企業이 成立되지 못하얏섯다 그런데 日本電氣化學工業株式會社가、朝鮮에 잇는 明礬石을 原料로 獨特한 方法으로 企業을 開始한以來 住友알미늄製鍊株式會社 이에繼續하야 近近 日滿알미늄 日本알미늄의 兩會社도 事業을 開始하게되어 日本新業의 基礎는 漸次 서게되엿다 이리하야 當局은 新業保護를 爲하야 關稅引上의 方針을 決定하얏다 當局의 關稅引上의 理由는

一、現行稅率(從價五分)는 알미늄의 生產이 全然업는때의 稅率이다

一、軍需品으로 國內生產이 絶對必要한것

一、從價二割은 日本化學製品의 普通稅率이다

一、生產能力、品位모다 不足이업는것

一、外國의 强大한 알미늄引渡이 덤핑 其他의手段으로 日本新業의 進展을 抑止하려는 傾向이 잇는것

一、關稅引上에 依하야 市價騰貴를 招來하야 需要의 負擔으로 되지와如한 일이업는것 이라는데잇다 輸入品을 防止함에 依하야 日本內地의 生產量이 增加하고 生產코스트는 低下할것으로 市價騰貴는 보게되지는 안흘 흡티이라한다 그리고 礦油關稅는 揮發油에對하야 까론當一錢七厘의 引上을 行하는것으로 그 結果 約三百萬圓의 增收가 豫想된다

日銀特融及損失補償法中改正法律案

의 要旨는 單只 同法의 期限이 昭和十二年五月八日로서 滿期가되는것을 다시 十個年延長하는것이다 此十個年間에 特融의 整理는 相當히 進行되엇다 即 昭和二年五月九日同法施行當時의 特融銀行數八十八行 金額 六億八千七百萬圓에對하야 昭和十一年末現在에는 四十九行 金額四億九千八百萬圓으로되어 債權가가하 回收되고잇다 當局으로서는 今後도 適宜한 返濟

貯蓄銀行法中改正法律案

貯銀으로하야곰 滿洲國의 國債를 비롯하야 公社債를 所持할수잇게하는 改正案으로 現行十一條에는 十一項에亘하야 그投資範圍가 限定되어잇다 이에 滿洲國의 有價證券을 追加하는것이 改正의 骨子이다

農村負債整理組合法改正案

農村負債整理組合法이 今年七月로써 三個年의 期限이 終了되는데 同法이 目標로한 六億圓의 農村負債中 今年一月現在에 잇서 僅僅九千八萬圓가량의 整理를 할수잇다는 豫測이 서게되엇슴에不過하다 當初의 目的에 達하려면 아직 遙遠함으로 同法의 期限을 三個年延長하는 改正案으로 全然 事務的改正이다

傳說에얽힌"자채"

一時盛運도 네궁只今엔零落蕭條

當局에서更生策講究

利川特產 利川支局 一記者

利川이 자채(自蔡=早稻)의 產地임은 自他가 認하는바이데 自蔡는 自古로 그名聲이 籍藉하야 一般需用者의 賞讚을 博하고잇는 利川驪州의 固有한 天惠的特產物로서 利川이라는 地名과 아울러 海內外에 널리알리워저잇으며 利川驪州는 살기조타는말도 이自蔡로 因함이라 其熟期의 早速함과 기름진 밥맛은 他種의 追從을 不許하고 食者로하여금 一食에 恍惚케하며 二食에 陶醉케함으로 李朝時代의 利川驪州는 名稱 貢稻로서 土地를 爭先所有하게까지되여 그影響으로 利川은 그어느 곳보다 일즉이土地 兼倂이 發達된 것갓다 自蔡由來에對하야 文獻上에 斷墨조차 찾을길이없고 다만 두어가지 傳說이잇슬뿐인데 그中 有力하다고하는 一說을 紹介하면 距今一千三百餘年前 新羅三國時代 北境에잇서 三國中最强國이요 漢族과의 衝突에서 그猛威를 떨치고잇든高句麗가 隋煬帝의水陸軍百十三萬을 一鼓에 문지르고 後 唐이隋를 代하야 中國의 覇權을 掌握하게되매 新羅에서는 唐과 親密히 하야 高句麗를 併合코자 자주 使臣을 交換하야 高句麗에서 알고 百濟와 攻守同盟을 締結하야 唐과 通來하는길을 끈코니 唐太宗李世民이 新羅의 請을 드러 三十餘萬의 水陸軍을 親率하고 高句麗를 侵略하다가 當時 安市城主 城將楊萬春의 百發百中하는 弓箭에 左目을 失하고 敗戰한後 忿怨하야 唐의 聯合軍이 해마다 高句麗를 侵攻하엿스나 番番히 失敗를 거듭할뿐이엇섯다 이러는동안 唐麗의사이에는 使臣의 往來가 頻繁한中 그어느 때이가 唐國에서 新羅의 答禮使로온 蔡某는 貢物中에 唐國栽培水稻를 進上하엿든바 그 쌀이 매우 기름지고 맛이조흠으로 新羅王이 蔡某를 命하야 自蔡栽培法을 一般에게 普及케하엿다 其後 蔡某는 新羅에 歸化하엿고 自蔡라고한 것은 蔡氏로부터 始作되엿다 는 意味로 自蔡라고 命名하엿다하며 自蔡가 極早生인것은 唐과가티 溫暖한 南部朝鮮에서 栽培하든 品種이 寒地에 栽培하든 것이다 本說에 依하면 當初에는 自然的으로 早生種이되엇다는 慶尙道로부터 北上하야 忠淸全羅道것서 自蔡栽培의 氣候風土가 適當한 京畿南端인 利川驪州와서 停止狀態로 固定된것이 아닌가한다 自蔡는 其後 栽培發達하야 早生種이 生하게까지되어 現在에는 五種類나되나 栽培方法은 同一하야 本畓에直播하며 播種期日은 小異하나 收穫期는 大差가 有하며大略다음과갓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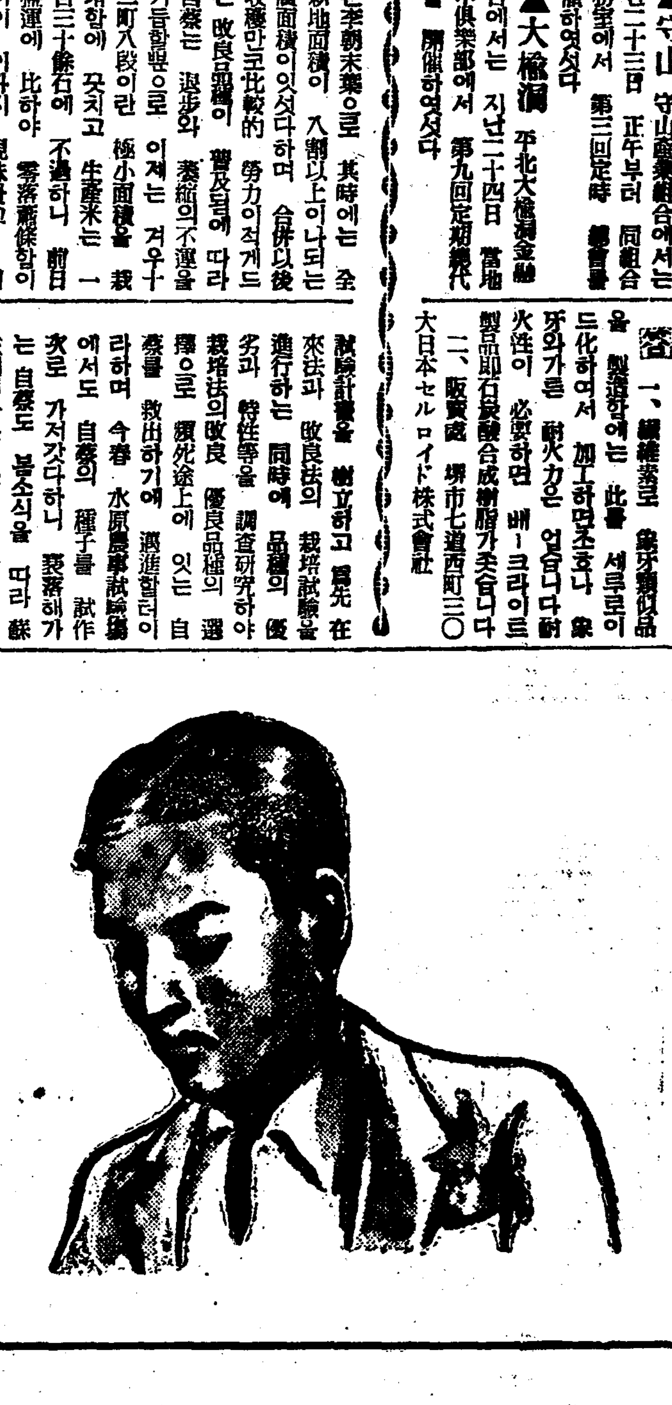
品種	播種期	收穫期
진상자채	四月上旬	七月中旬頃
노인자채	四月中旬	八月中旬頃
앙자채벼	四月中旬	八月下旬頃
귀다리 自蔡早生種	四月中旬	九月上旬頃
自蔡晩生種	四月中旬頃	九月中旬頃

大槪 自蔡가利川、驪州에서만 栽培케되기는 李朝以後라하며 前記進上稻는 文字그대로 進上하든超早生稻이고 現在는收穫하기가무섭게 正租石當三十圓內外로 日本內地로 건너가고잇다한다 自蔡栽培의 最盛期는李朝末葉으로 其時에는 全耕地面積이 八割以上이나되는 廣面積이잇섯다하며 合倂以後收穫만코比較的 勞力이적게드는 改良品種이 普及됨에 따라 自蔡는 退步와 衰頹의不運을 거듭할뿐으로 이제는 겨우十二町八段이란 極小面積을 栽培함에 꼬치고 生產米는 一百三十餘石에 不過하니 前日盛運에 比하야 零落蕭條함이 어이 이다지 現殊한고? 이제야말로 正히 利川天惠의特產인自蔡의 命이 絶하려하고 잇스니 이어찌 애석치안흐랴 이에 郡當局에서도 着眼한바잇서 數年前부터 그 復活策을 講究苦心하든中 今年에비로소 利川特產早稻自蔡栽培試驗計畫을 樹立하고 爲先 在來法과 改良法의 栽培試驗을 進行하는 同時에 品種의 優劣과 特性等을 調查研究하야 栽培法의改良 優良品種의 選擇으로 瀕死途上에 잇는 自蔡를 救出하기에 邁進할려이라하며 今春 水原農事試驗場에서도 自蔡의 種子를 試作하로 가저갓다하니 衰頹해가는 自蔡도 봄소식을 따라 蘇生되여가는 늣김이 잇스며 不遠한 將來에 面目更新한 利川特產自蔡가 市場에 出廻되야 海內外의 玩讀을 博하며 人類營養上에 「서비쓰」할날을 讀者諸氏와함께 손곱아기다리기로하고끗트로昨年度에는普通自蔡白米一石에三十圓이엿다고

黃昏 【76】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암투(三)



경재는 아직 뭐지를 가서 살아본일이 업는 농촌에 대하야 여러가지 공상을 그리여본는 한편、자기가 가장 미워가 생각하는 형철의 이야기를 기를 생각해보기도 하고、또 그에게 편한 이야기를 좀더 계속해 보고싶은 생각도 잇섯다。

그는、집에서 형철이와 어린애 하는 사이에도、또는 역시 엣친구와 한사람인 봉우와 함께 술마실때에도、자기와 형철의 사이에는 어떠한 구거와 거리가 생겨잇는것을 늣겻스면서도、지금 려순이에게 대해서 형철의 말을 여러가지로 해보고싶은 야릇충동이 잇섯다。

그심리는 즉、생활과 생각이 변해가면서도 그예말의 놀음못과 갓잇는 행동을 자랑함으로서、자기의 가치와 인격을 구지 보지해가라는 그러한 심리와 공중되는것이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려순이가 아직 사회적으로 전연 백지이니만치、아래에서 거진 무방하게 옴지기는것이다。

경재와 형철이는 동무가려하든 친근한 동무이지만 오늘에와서는 표면으로는 여하튼、속으로서는 접근할수업는 거리에 갈되엿다 공장으로 들어가라는 노력잇는것가러 경재에게는 생 형철이는 자기의 진정한 속뜻은 비처 말하지 안흐려는것갓기도 하엿고 그무엇인가 자기보다 딴생각을 숨겨가지고 잇는것 갓기도 하엿다。

어제ㅅ밤 카페ㅡ에 갓슬때에도 경재는 자기와 형철의 거리를 깨닷앗다。

카페ㅡ 붉고 푸른 전등비치 음울한 기분을 던지고、축음기 레코ㅡ드가 울리한 소리를 자어내고、푸른 넙、붉은 꼿、유두불면、울긋한 그늘、불은 음향속에서 밤늘마지한 회색경、카페ㅡ로 들어설때에 형철이는 삼시에 정신이 흐려여 지는、듯 놋은 불비를 차지못하고 밝은 드림것을 모르는것 가텃다。 그러나、그서로른 동작을 웃기에는 그의 흔내나는 「진심」이 너무나 깁혓고、그의 순한 사람됨이 너무나무거웟다。

형철이에게 비기면、경재자신은 그러한 환경에 퍽 깁히 물드러잇다。

고마로、[illegible]

차이가 차이고 떠러서、어떠한 경재려시기에 가서 또고 심각한 차이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루 하루가 모혀서 한달이 되고、일년이 되고、십년이 되는 것이다。 이 하루 하루를 의미업시、갓가시 보내고、어찌갓잇고 빛나는 십년후를 바라랴?

경재는 형철이로해서 사상의 고민을 날로래 좀더 깁히 느끼게 되엿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형철이를 미워하거나 섭섭히 생각는 일은 업섯다。

자라리 그는 옛날의 의긔를 엣공 자긔자신을 힘차시 도리켜보는 용기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엿다。

형철이 모양으로、맛내 나는 그들의 틈에 끼여 직공시험에 용해를 용기가 잇슬가? 형철이처럼 놀글을 사이에서거서 공사를 해볼 용기가 잇슬가?

「구래여 그러지 안해도 조랑 어디 엿을지 조랑 어떤 경우든지 살림업다。 생각만 잇스면야……」

하는 것이 행용 하는 말이나、그러면 구래여 그리케하지 안허도 조라는、그들의 생활에는 무슨 취할 바가 잇는가?

그는 찌롭지 안흘수 업섯다

그러나 오히려 제몸을 운전해야할지 그는 알지 못햇다。

「유위한 사람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붓끄러움을 느끼면서도、보록이 이런 자리에박게도 설수가 업섯다。 형철이를위해서 그의동대로 노력해줄것을 그는 스스로 제몸에 다짐을두엇다。

사장은 여태 돌아오지 안는다。

려순은 려순이대루 제생각에 잠겨서 아모말 업시 가만히 안저잇다。

「려순씨!」

「네」

「요새 공부 만히 하십니까?」

「현철요、좀……」

「공부 만히 하시지요」

경재가 이제 공부나 목식히 해야겟다고 생각하면、려순에게 그들을 흐거맘때에、합거서 가벗게 몸을 녹크하는 소래가 들리드니、외자 누가 들어 들어오는。 현목이다。

「경재씨……여기 오셔서요」

경재는 훔칫 그편으로 눈을 주다가、다시 고개를 돌려 사장님에게로 만족한다는 표정을 먼저 돌아다보앗다。